

를 뿌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몇 안 되는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경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를 생각하며, 또 이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기 도 인 도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어떤 환난,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449장 다 같 이

1.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2.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3.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4.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5. 주를 힘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후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 멘**

폐 회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멘**



2022년 3월 20일

주일저녁예배

가정예배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주제일교회**

The Gyeongju First Presbyterian Church (Since May 10, 1902)

위임목사 **박 동 한** Rev. PARK DONG HAN

38154 경북 경주시 중앙로 47번길 3(노동동) 3, Jungang-ro 47beon-gil, Gyeongju-si, KOREA
행정실.054-742-0211~2 / FAX.054-743-2785 / 교역자실.054-742-0216 / www.kjfc.or.kr

가정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다 같이

1.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풀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2.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풀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3.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해매며 주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풀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¹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²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³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⁴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⁵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⁶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⁷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⁸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⁹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 족 중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오늘 본문 이후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각종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귀신들린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켰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의 가르침 보다 뛰어났습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정말이지 ‘센세이션’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로마 권력에 기생하던 헤롯 일당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반역자’로 여겨졌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 기존 유대성전 신앙을 수호하던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 배척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의 설교처럼 살 수는 없어.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방식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친구도, 가족도 모두 잃고, 거지꼴을 못 면하겠네.”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리저리한 이유로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몇 안 되는 무리들과 길을 가시다가 열심히 씨를 뿌리던 농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쟁기질을 하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려 심고 그 후에 쟁기질을 하고 거두는 순서였습니다. 또 농경지도 오늘날 처럼 잘 가꾸어진 곳이 아니라 대부분 석회암 암반층에 얇은 흙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돌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시덤불도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길에서 농부가 뿌리고 있는 씨의 대부분은 밭 사이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던 길에 떨어지거나, 석회암 암반층 위 또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뿌린 씨 중의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때로는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때로는 환난과 시험으로, 또 때로는 물질과 세상의 염려로 좌절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